한 형 조

무문관 탐방

57

세존의 채찍 ②

언어에 대한 불교의 근본태도 아비달마에서 확인

"말·침묵 그너머 소식은…"

외도는 '말있음'과 '말없음'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그 너머의 소식이 그리운 것이다. 그렇지만 성급하게 서둘 일이 아니다. 그곳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닥부터 훑어야 한다. 대체 '말있음'과 '말없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더 근원적으로 불교에서 '말'이란 무엇인가.

나는 불교의 관건이 '언어'에 있다고 생각한다. 언어,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공생하고 있는 사유의 성격과 본질, 그것이 불교교학의 중심논제이다.

그동안 서구에서는 언어가 실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했다. 그 바탕에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있다. 그리고 중세에는 개별존재를 통괄하는 보편자로서의 개념의 본질을 두고 오랜 논란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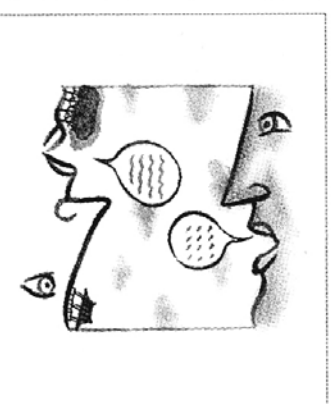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20세기에 들어서도 러셀은 "세계의 구조는 언어의 구조, 특히 인도유러피안의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논리적 원자론을 주창했다. 언어가 논리적으로 짜여있듯이 세계 또한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른바 그림이론(picture theory)에서 이를 더욱 확장시켰다. 그 한켠에서 카르납같은 사람은 아예 모호한 일상언어를 고쳐, 완벽한 인공언어를 창안하겠다는 포부까지 내보였다.

노자가 그랬던가. "발뒤꿈치를 들고서는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랑이를 벌리고서는 오래 걸을 수 없는 법이다(企者不立 跨者不行)." 언어의 인공적 기획이 좌절하면서 곧 반성과 비판이 잇따랐다. 사람들은 일상의 언어를 재발견하기 시작했다. 나중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일정한 대상을 지시하기보다 삶의 공간에서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 연장선에서 이른바 수행이론(perforative theory)은, 언어의 실재가 삶의 공간에서 "나는 약속한다"거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언어의 실재적 견고성에 대한 더욱 과격한 비판이 해체라는 이름으로 유행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언어는 실재를 반영하는 것도, 그에 대응하는 것도 아니다. 언어는 다만 흔적, 혹은 끄적거림으로써 존재한다. 언어를 통한 의미는 자신의 고유성을 갖지 못하고 늘 다른 것으로 미끄러진다. 흡사 직물(織物)처럼 텍스트는 씨줄과 날줄로 엮어놓은 임시적 구성물일 뿐, 자신의 실재성(自性)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기표(記表)만 있고 기의(記意)는 없다는 식으로 어렵게(?) 얘기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자아와 세계의 자성을 부정하고, 또한 언어가 일정한 실체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극력 타기하는 불교는 지금 말하는 서구의 해체적 사유와 손잡고 있는 듯하다. 이 둘에 대한 비교연구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띨 것이다. 그럼에도 유의할 것이 있다. 나는 표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상이(相異),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설을 듣고 있으면 얼핏 〈미란다왕문경〉이 떠오른다. 이 경전은 인도의 형이상학적 사유와 그리이스의 합리적 사유가 만난 것은 가위 문명사적 사건이었다. 인도에서는 나가세나라는 비구가, 그리고 그리이스에서는 메난드로스왕이 출전했다. 그때 나가세나는 불교의 근본소식인 무아(無我)를 메난드로스왕에게 설득시키려 했다. "왕이시여, 어느 것이 수레의 본질(自性)입니까. 굴대입니까, 바퀴살입니까, 아니면 바퀴통입니까." 메난드로스왕은 이 논법에 담긴 심원한 방편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현대의 우리 역시 그럴 것이다. 대학 시절의 나 또한 처음 이 억지(?) 논법에 고개를 갸우뚱했었다. 돌이켜 보니 그만큼 일상적 사유의 관성은 완강하다.

내가 이 논법을 이해하게 된 것은 아비달마의 교설에 접하면서부터이다. 아비달마에서 우리는 언어에 대한 불교의 근본태도를 그 실천적 관심에서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언어에 대한 불교와 포스트모더니즘 사이의 이동(異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아비달마는 다르마(dharma)에 대한 이론 혹은 해석이다. 다르마에는 여러 뜻이 있다. 진리, 그리고 진리를 담고 있는 언어를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종교적 의무, 그리고 그를 통해 구현하는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뜻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소승의 한 갈래인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Sarvastivadin)의 전문용어로,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적 구성단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근대과학의 원소 혹은 원자같은 것을 떠올리려 한다. 그렇지만 다르마는 사물이나 사태를 그 부분으로 분해하거나 혹은 더욱 미세하게 관찰한 결과가 아님을 미리 주의시켜 둔다. 그렇다면 다르마는 무엇인가. 다르마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사물이나 사태의 모습을 가리킨다. '전혀 다른'이란 정도로는 불충분하다. 그것은 근본적인 시각의 전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대체 우리의 일상적 사물의 모습이 어떻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가라고. 여기가 출발점이다. 까다롭고 미끄럽긴 하지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살면서 행복 누리려면…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로 쉬운 팔정도

17

어느날 부처님이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이던 다가자누라의 질문을 받았다. "저희는 세 속의 즐거움을 누리는 속인입니다 … 비록 이런 형편의 우리들이지만 이생동안 행복으로 이끌어줄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브처님은 "다가자누여! 이 생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무엇인가 즐기찬 노력, 주변을 잘 보살핌, 좋은 친구와 사귐, 분수에 맞는 생활, 이 넷의 구족(具足)이 그것이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세속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을 딱 잘라 양분해서는 안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직업이라 해서 반드시 생계수단에 그쳐야 할 이유는 없고 정신적 발전의 수단도 될 수 있어야 한다. 사무원이든 사업가든, 주부이든 의사든, 농부든, 판사든 간에 바로 그 직업을 정신적 자질을 계발하는 수단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하는 행위이다. 규칙적인 명상은 내면의 고요와 평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과 판별력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그래서 인생은 정말로 경이로운 경험으로 가득찬 멋진 모험 길이 된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부딪쳐야 하는 갖가지 갈래 길에 당황하지 않고 이를 태연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명은 우리가 일터에서 가만히 서 있으며, 잠시동안 눈을 감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일터를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인식하고 느껴보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보다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등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의 일터에는 깨달은 보살의 선물 꾸러미가 숨겨져 있다. 우리가 이 꾸러미에 한 걸음씩 다가설수록 보다 의식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 "끊임없이 노력하고
> 주변을 잘 보살피며
> 좋은 벗과 사귀며
> 분수에 맞는 생활하라"

만약 부처님이 왜 선물을 남겼는지 다소간의 설명이 필요하다면 메모를 읽으면 된다. 여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두 세 마디의 경구들이 적혀 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내 일터에서 평화와 조화를 계속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일하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내 일 속에서 불법, 진리를 찾기 시작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들에 대해 마음의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일터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사랑, 보살핌, 다정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잭 케로악의 어느 산문중에서 다음 구절은 팔정도의 다섯번째 가르침인 정명을 한번쯤 곱씹게 하는 사상이 담겨있다.

제나로는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한다. 왜소한 그이지만 거대한 대지조차 안고 싶어한다. 이것은 제나로의 삶이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지, 고통스러운 곳에서도 그가 어떻게 평온할 수 있는가의 합당한 해답이 된다.

그러나 그의 사랑이라는 열정에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녹아있다. 그는 슬픔도 넉넉히 눌어버릴 수 있다. 그런 그에게 자연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 정신에 자유를 준다. 집착하지 않고 사랑할 때, 타인의 슬픔도 놓아줄 수 있다.

현명함은 명상 수행을 통해 갖추어지는 마음의 성숙이다. 그러므로 명상 수행은 재가생활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해 주는 것이며 명상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재가생활 역시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명상 수행은 어디까지나 자기 변혁을 이루어 내는 자기 계발의 방법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대단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자기 계발은 매우 특이한 돌파 작업을 완수해 내는 바, 그것은 지성의 겉껍질을 돌파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혜의 빛 앞에 활짝 열리도록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지혜의 빛이 흘러들어와야만 우리의 인격은 비로소 향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끝없이 성난 파도가 밀려드는 이 세상에서 든든한 마음의 방파제보다 더 좋은 것이 또 있을까.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66

불교와 수학

61

연기와 카오스

김 용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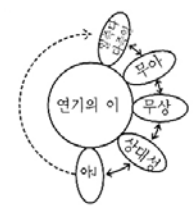
세속적인 생활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불교적인 낱말은 생소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들 개념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말들과 서로의 관련성이 금방 나타난다. 간단한 보기를 들어보자.

'당신은 누구입니까?'의 물음에 '나는 홍길동이요'라고 대답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자식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의 아내, 아버지, 할아버지…… 등의 입장에서는 남편, 자식, 손자와 같은 식으로 저마다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홍길동은 하나이지만 그와의 관계에 따라 명칭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나의 대상에 대해 상호관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간단한 한 사람의 호칭에 대해서도 '緣起의 理(모두가 연이 있음으로써 나타난다)'가 작동하고 있다.

홍길동 하나를 두고 여러개의 의미와 명칭(관계)이 있는 것이므로 '一卽多 多卽一'이기도 하다. 현상은 연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관련되는 입장이 다르면 의미가 바뀐다. 당연히 유일적인 것이 아니기에 절대적일 수 없다. 절대적이 아니므로 기준이 일정치 않다. '척(尺)에 따라 길이가 달라질 수 있다', '척(尺)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無我(本性이 없다)', '無我이기에 空이다'…… 등 이 사실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연기의 理 **한사람 호칭도 관계에 따라 달라져**

복잡성 과학 **현상 중시하는 연기론 그대로 수용**



위와 같이 '연기의 理'를 가운데 두고 무아, 공, 상대성, …… 등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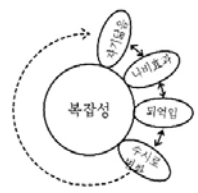
복잡성의 과학은 컴퓨터의 발달로 등장한 새로운 과학분야이다. 즉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갑자기 예상 이외의 모양으로 변하는 현상을 복잡계라고 한다. 고속촬영으로, 운동체의 순간마다의 상황을 잘 관찰할 수 있게 된 것과도 같이 고속으로 현상을 분석·계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복잡한 현상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었다. 유클리트 기하학은 도형의 성질을 공리(점, 선 등에 관한)에 환원시켜서 관찰하는 것이므로 요소환원주의의 입장이다. 기본 요소를 '신(공리)'에 두는 기독교는 유클리트 기하학과 비슷한 논리체계를 갖는다. 한편 복잡성의 과학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므로 유클리트와는 반대의 입장이다.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가 곧 '연기'이다. 요소환원주의와 복잡성과학에 관한 간단한 보기를 생각해 보자. 사회주의국가와 같은 계획경제에서 가격은 단순히 관리가 원가 계산을 근거로 결정한다. 이때는 몇 개의 요소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요소환원주의이다.

한편 증권시세는 많은 증권투자가들이 다른 투자가의 눈치를 보며 사고, 팔며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복잡계이다. 복잡계(증권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수시로 나타난다.

가격이 일정하지 않다(무상), 가격의 실체가 없다(무아), 투자자의 상호관계(연기)로 가격이 결정됨으로 상대적이다. 특히 다음 상황이 중요하다.

①지금 이 순간의 상행위가 다음 순간의 가격을 순간적으로 반영한다 : 되먹임(feed back · 업사상) ②어느 투자자의 사소한 심리변화가 시장의 동향을 순간에 바꿔 놓을 수 있다 : 나비효과(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이 내일의 일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 · 연기) ③한 사람의 행위가 전체에 영향을 주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전체가 정한 가격이 개인의 투자 의욕에 영향을 준다 : 一卽多 多卽一 ④증권시장에는 수시로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해서 나타난다. : 자기닮음(업)

불교철학은 '연기의 理'에 기반을 두는 것이므로 당연히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연기)의 입장에서 현상을



보는 복잡성의 과학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Ⅰ과 Ⅱ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CARNIVORE 2000

(길이 480mm, 높이 260mm, 폭 130mm, 중량 1.4kg)

카니보 2000 하나면 여름이 편안해진다.

모기 및 모든 해충으로부터 해~방!

⊙ 사찰에 꼭 필요한 상품으로 대만족 확신!
⊙ 방역, 소독 필요시 간편하게 사용가능(어린이도 조작 가능)

농가, 축사, 어촌, 정원, 야외가든, 지하철, 병원, 화장실, 쓰레기장등 소독이 필요한 모든 곳의 전염성균예방

특별보급가 158,000 ※ 3회 분할가능 ※ 각종 신용카드 장기분할가능

※ 현 금 가 : ₩ 130,000

보급처: 한마음 ☎ 051)865-1182 하나하나빨리 ♣크로바서비스:080-007-1182

전국 어느곳이든 배달가능!

訃 告

대한불교 조계종 五峰山 石窟庵 重創主이시자 會主이신 宋超安 禪師께서 佛紀 2542년 7월 2일(음 윤 5월 9일) 오전 11시 世壽72세, 法臘 60세로 世緣을 다하고 涅槃에 드셨기에 다음과 같이 奉先寺 門徒齊을 奉行함을 알려 드립니다.

◆ 奉先寺 門徒葬 ◆

1. 영결식 : 불기 2542년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오봉산 석굴암 (0351)826-3573
2. 다비식 : 불기 2542년 7월 6일 오후 1시
   오봉산 석굴암 다비장

■ 증 명 : 雲鏡 月雲
■ 장례위원장 : 密耘
■ 호 상 : 寂照
■ 문 도 : 寂照 道安 海眼 道泉 知玄 智學 知一 法城 慧雲 영호
■ 상 좌 : 度一

불기 2542년 7월 2일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1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오봉산 석굴암
(0351)826-3573

· 설법 게송집 ·

'멋대로 부른 노래'

- 산거스님(淨宇)스님의 설법게송집① -

⊙ 속이 답답하신 분은 이책을 읽으세요.
⊙ 마음을 잡지 못하시는 분은 이책을 읽어 보십시요.
⊙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시는 분은 이책을 보십시요.
⊙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운 분은 이책을 보십시요.
⊙ 아직도 불교의 속뜻을 모르시는 분은 이책을 보십시요.

· 170쪽/값 4,000원

그저 심심풀이로 한번쯤 읽어보고 지나가는 책이 되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이노래를 서너번이라도 읊조려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무엇인지, 불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 믿는다.

-산거지(淨宇) 합장-

⊙ 전국 유명서점,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 법보시 하시는 분은 할인하여 드립니다.

■펴낸곳 : 경서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T. 02)733-3345~6 F. 02)722-7787